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도행품(道行品) ②

起時當即起 기시당즉기
莫如愚癡淵 막여우복연
與眾無諍聚 여타무쟁취
計罷不進道 계파부진도

탐욕과 뜻이 스스로를 묶는다
저 송아지가 어미 젖 그리듯이

能斷意本 능단의본
生死無纏 생사무강
是爲近道 시위근도
疾得泥洹 질득니원

늘히 생각의 근본을 끊어서
나고 죽음에 애설것 없으면
이는 도에 가까운 것이다
빠르게 열반에 들어가라

貪嗔致老 탐음치로
願毒致病 진에치병
惡難致死 우치치사
除三得道 제삼득도

탐욕에 빠지면 죽음에 이르고
성내는 마음은 병고를 가져오며
어리석음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삼독을 없애야 도에 이르러라

離前解後 석전해후
脫中渡彼 탈중도피
一切念滅 일체념멸
無復老死 무복로사

앞 생각도 놓고 뒷 생각도 놓고

분발할 때에는 즉시 떨쳐 일어나되
저 어리석은 이 연못 뒤집듯 하지
말라
함께 빠져서 바라 볼 것 없으니
뉘는 법 깨지면 도에 나가지 못한
다

念應念則正 염응념즉정
念不應則邪 염불응즉사
慧而不起邪 해이불기사
思正道乃成 사정도내성

생각이 온전하면 곧 바른 것이요
생각이 흩어져 비침이 없으면 샅되
다
지혜로운 이 샅된 번뇌 일으키지
않고

慎言守意念 신언수의념
身不善不行 신불선불행
如是三行除 여시삼행제

“탐욕에 빠지면 죽음에 이르고
성내는 마음은 병고를 가져온다”

佛說是得道 불설사득도

중간 것도 벗어 버리면 피안에 이른
다

말을 삼가는 것 뜻을 지키는 것
모르는 선하지 않는 일 행하지
않는 것
이 세가지 행을 깨끗이 하면
부처님께서 도를 얻으리라 하셨네

人營妻子 인영처자
不觀病法 불관병법
死命卒至 사명졸치
如水滿溢 여수만취

사람들은 처자권속 거느리느라
병통이 무언지 살피지 못한다
죽음이 갑자기 닥쳐오면
홍수가 마을을 쓸어가듯 할텐데

斷樹無戈本 단수무발본
根在猶復生 근재유부생
除根乃無樹 제근내무수
比丘得泥洹 비구득니원

나무를 잘라도 뿌리를 뽑지 않으면
뿌리는 남아 오히려 되살아난다
뿌리 뽑아야 나무는 없어지니
비구는 이렇게 해서 열반에 이른다

父子不救 부자불구
餘類何望 여친하망
命盡情視 명진호친
如歸守燈 여귀수등

아버지와 아들이 구원하지 못하거늘
나머지 친족이야 무엇을 바랄건가
목숨 떨어질때 친족을 믿는 것
장님이 등불을 간직한 것 같으니

不能斷樹 불능단수
親戚相戀 친척상연
貪意自縛 탐의자박
如積糞穢 여적분유

나무를 베어버리지 못하면
번뇌 망상이 서로 그리워해서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내 마음자리 못 찾으면

성찬스님 (도성암 조실)

요즘은 삼시 세배 공양하고 오전 오후
2번씩 운동하며 소일하고 있어요. 때로
사중의 살림살이를 장만하기 위해 한중
장에 내려가 세간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합니다. 늙은 탓에 몸이 좋지 않아 좌선
정진을 주로 합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
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이후 새벽 1시
까지 정진을 합니다.

침을 때 정진하던 습이 아직도 남아 있
어 잠은 2~3시간만 잡니다. 정진을 하되
화두를 들지는 않아요. 화두를 타파한 이
후의 정진이니 설명해도 알지 못할 것입
니다.

논산군 덕암리에서 6남매중 셋째로 태
어난 나는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숙부모님 등 어른들의 충중시하
에서 자랐어요. 대가족이라 농사도 많
이 짓고 먹고 살 여건도 괜찮았지요. 하
지만 일은 시키면 잘 했어도 공부는 웬
지 하기 싫었어요. 그러다보니 부모님도
공부 시킬 생각이 아예 안하시더군요.

그런데 열다섯 살이 되니 공부 안한 것
이 후회가 됐어요. 철이 들어 세상사에
눈이 떠지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
한 거예요. 스무 살이 되어서는 문득 ‘내가
촌에서 일만 하다 죽으면 인생에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모든 게 덧없이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노릇할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까. 그 생
각이 머리에 가득했어요. 결국 집에서는
사람노릇 하기도, 제대로 길을 찾기도 어
렵다는 생각이 들자 입산을 결심하게 되
었습니다.

동학사에서 이지은스님을 은사로 출가
한 것이 스물두살 때였어요. 그 당시는
불교가 믿지도, 선지식이 얼마나 중요하
지를 잘 몰랐습니다. 수행에 대한 바른
지표와 자극을 얻지 못한 나는 믿지 모
를 답답함에 오래지 않아 만경장에 나서
게 되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떠돌고 한 곳에 오래 머물
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엔 일을 해야만 먹
고 사는 때였어요. 잘 살림이 어렵다보니
자주 수행처를 옮길 수 밖에 없었거든요.
만경시에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본격적인 정진은 스물네살 때인
오대산 상원사에 머물면서부터었어요.

상원사의 방한암선사는 내게 ‘마삼근
(麻三斤) 화두를 주셨어요. 하지만 7~8
개월을 지리틀고 앉아도 화두는 안되고
망상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기가 성숙하
지 못했다는 생각이 얼얼수행을 병행했
습니다. 아직은 내 본성을 직접 관하는

힘이 부족해 타력에 의지하여 마음자리
를 얻으려는 생각에서 였죠. 얼마 뒤에는
금강산 마하연으로 떠났습니다.

장안사와 표훈사에서 더 들어가는 마
하연은 경치가 좋아 수행처로는 최상의
적지(適地)입니다. 그곳 마하연에서 선각
(先覺)들에게 받은 화두는 ‘시상마(是甚
麼, 이렇고)’였어요. ‘밥 먹고 똥 싸고
잡자고 걸어다니고 희로애락을 거들하는
이것이 무엇이고’ 하는 의문이었어요.

육조스님의 ‘내게 한 물건이 있으니 이
것이 무엇이고(吾有一物 此何物)’ 하는
화두였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청
황적벽(靑黃赤碧)의 빛깔도 아니요,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으며, 추우면 추
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배고프
고 목마르면 그런 줄 아는 이 물건이 무
엇이고’ 하는 화두예요.

사람마다 마음 가운데 한 물건이 있
나 이것을 등지고 살아요. 깨달아야 사람
노릇 해요. 앉아서 천상천하를 당겨 보
고, 못 밭의 사람들을 만나 볼 수도 있어
야 사람노릇 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 1914년 8월 충남 논산 생
· 1936년 이지은스님을 은사로
동학사에서 출가
· 1954년 정혜사에서 만공스님의
제자가 됨
· 1969년 이후 현재까지 대구 비슬
산 도성암에 주석



“머리가 길든 짧은 여자든 남자든
발심만 제대로 하면 누구나
마음속 이 한물건 볼 수 있어요”

자성자리를 밝힐 수 없어요. 내 마음자리
도 모르고 껌대기만 살게 됩니다. 깨달
지 못하면 중생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몸통이 없어지면 무엇을 나라고 할
까요. 몸통이는 마음자리가 의지하는 집
과 같아요. 깨달아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부지런히 참구하면 누구나 이 한 물건
을 볼 수 있어요. 머리가 길든 짧은, 산
에 있던 도시에 있던, 결혼을 했든 안했
든 발심만 제대로 하면 누구든지 가능하
니다. 공부원은 관청에서 공무를 집행하
면서, 직장은 회사에서 업무를 보면서,

농사꾼은 뜰에서 밭을 매면서 이 화두를
잡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도 도를
닦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의 양무제는 수많은 절을 짓
고 많은 스님을 양성했으니 많은 토지를
보시했어요. 어느날 달마대사를 만나 물
기를 “대사님, 나는 수만개의 절을 짓고
수만명의 스님을 양성해 하고 수많은 시
주를 했습니다. 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
까?” 하자, 달마대사는 “공덕이 없습니다
(無所功德)” 했어요.

‘범소유상(凡所有相)이 개시허망(皆是
虛妄)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이런 죽견여래(卽見如來)라는 <금강경>
한 구절을 외우는 것이 훨씬 큰 공덕이
란 뜻입니다. “보시라는 것은 마땅히 머
무는 바 없이 해야 하거늘(應無所住, 行
於布施) 상에 걸린(住於相) 보시가 어찌
공덕이 될까보냐” 이런 뜻입니다.

또 삼천大千 세계에 가득한 7보로써
보시하는 것은 복덕(福德)에 지나지 않
으나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것은 그
보다 훨씬 큰 지혜의 공덕이 된다고 했
습니다. 공부하는 공덕보다 더 큰 게 없
다는 말이에요. 언제든 마음자리 깨달
겠다는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
님의 열반 설법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거창한 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든 마하연에서 잠 안 자고 공부하
며 절따막막한 보람이 있어 참선의 참
맛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부에 힘을 얻게 돼 3년 정도면 대도견
성(大透見性)하리라 자신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틈에 알 수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
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
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
장)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
효시킨 감정 건강식품 ‘불로화정’
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
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
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
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
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현재 국내 감시초음료 시장이
2백50여억대의 규모로 확장되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
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관
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명 대
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
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
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
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외에 10여종의 첨
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
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
아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
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김창수: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
건강원을 운영하
며 병고에 시달리
는 환자들을 돌보
는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 외 10
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

참가서 노회익제 임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
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목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